

# 을사년의 망국을 불러오는 친일사대매국노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일본수상 기시다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회담을 벌였다. 역도는 십나라수피와의 여러 회담들에서 그 무슨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미일남조선 《3각공조》와 남조선일본관계발전 등에 대해 모의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조속한 완성 및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대결모의 관이었던지 친일사대매국노의 추악한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망국회담이었다. 친년속속을 《국빈》으로 환대하며 요란한 영접행사로부터 단속 및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친교만찬 등을 벌여놓은 역도의 행태는 과거 조선총독을 섬기는 식민주주의의 꼴골대로였다. 회담시작전부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사문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더욱을 늘어놓으며 일제의 과거죄악

을 백지화하고 침략인사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기사다에게 감사하다며 머리를 조아린 역도의 역겨운 추태는 을사오적도 무색케 하였다.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와 관련한 현시차탈단과전합으로 일본의 후안무치한 핵오염수방류에 명분을 제공해주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협력공조자 남조선일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것이라며 미국의 인디야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가고 공화국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늑대리 바이와 함께 고안해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위싱턴선언》의 모략실현에 일본까지 끌어들일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핵협의그루뵤》설립과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전개, 합동군사연습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위싱턴선언》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중지 위협하는 《핵대결각본》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전쟁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다그쳤던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외침략정책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비롯한 수많은 북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으며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주주들을 저들의 인디야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세우려고 책동하고있다. 한편 친법국인 일본반동들은 패전의 양각음을 하고 《대동아공영권》의 껍질을 기어이 이루어는 야망밑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윤석열역도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이쳐온 친년속적과 입을 맞추며 《북의 핵 및 미사일개발은 조선반도와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다. 쌍방협력과 공동의 번영이 필요하다. 북핵대응을 위한 미일남조선3자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떠벌이며 침략적인 미

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에 일본을 끌어들여려고 공공연히 획책하였다. 결국 역도는 지난 70여년간 이 땅에 얼룩진 사대매국사의 죄악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단 1박2일만에 덧씌워놓았다. 한세기이상에 걸쳐 쌓이고 맺힌 친추의 한을 풀고 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도 모자랄 왜나라 평양인들에게 이 땅을 통째로 넘겨바치려는 역도의 존재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력사의 비극이다. 지금 해외여론은 이번 회담을 두고 《력사를 팔아먹은 죄악의 (대통령)》, 《력사의곡과 책임정체로 일관하는 기시다정권에 게 거들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내부의 격렬한 반일계 거들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내부의 격렬한 반일계 거들 면허부를 준 회대의 굴종외교》, 《남조선을 일제의 현대사민지로 만들려는 친화역적》, 《미국의 조종에 따라 간과 쓸개를 다내주면서도 뒤늦은 맛은 굴욕외교》 등으로 저주와 규탄을 퍼뜨리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5 (한)

일합의파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조봉살죄전환행동》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시다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하다면 윤석열역도가 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종과 치욕만을 들뜨우게 될 기시다의 이번 서울행각을 그리고 고대해나갈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윤석열역도와 기시다의 이번 회담은 철두철미 미국상진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것이다. 이미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차지하려는 기도밑에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 《핵협의그루뵤》를 미일남조선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거론해왔다. 나토는 《핵공유》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려는 것은 《3각군사동맹》이 핵전쟁 《동맹》, 나토보다 더 호전적인 아시아안 나토임을 예고해주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회담이 미

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협력관계를 불러들여 《확장적역력》강화약속을 《위싱턴선언》으로 요란하게 포장하여 안겨주었다. 상진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주주는 공화국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쌍방협력과 미국과의 《3자협력》강화가 필수적이며 곧 진행될 주요7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3자수뇌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력설해했으며 나중에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3자수뇌회담》에서 합의한 《북미사일정보정보의 실시간공유체계 구축》을 보다 심화시키며 《위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를 미일남조선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거론해왔다. 나토는 《핵공유》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려는 것은 《3각군사동맹》이 핵전쟁 《동맹》, 나토보다 더 호전적인 아시아안 나토임을 예고해주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회담이 미

일남조선사이의 군사적협력관계를 불러들여 《확장적역력》강화약속을 《위싱턴선언》으로 요란하게 포장하여 안겨주었다. 상진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주주는 공화국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쌍방협력과 미국과의 《3자협력》강화가 필수적이며 곧 진행될 주요7개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3자수뇌회담》 개최가 중요하다고 력설해했으며 나중에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3자수뇌회담》에서 합의한 《북미사일정보정보의 실시간공유체계 구축》을 보다 심화시키며 《위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를 미일남조선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거론해왔다. 나토는 《핵공유》보다 더 강력하다는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뵤》에 일본까지 포함시켜 《3각핵협의그루뵤》로 확대하려는 것은 《3각군사동맹》이 핵전쟁 《동맹》, 나토보다 더 호전적인 아시아안 나토임을 예고해주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이번 회담이 미



남조선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을 떠들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강점 미 제정략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격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데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시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는 등 미일남조선 《3각군사공조》강화에 구성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민방위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고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미국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5차에 걸쳐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군

지난 4월에 들어와서만도 미 핵동력항공포함과 이지스급 구축함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데 이어 연합해상대사이 버방어훈련, 대규모지상합동 훈련, 연합공중훈련, 《2023년 방기 지상합동훈련》, 미일남조선탄도미사일정보훈련, 연합공공력합동 훈련 등을 강행하였다.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 서 세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처달려온 대결광신자들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수 없는 초강력, 절대적합을 지닌 세계적인 핵강국, 초대강국이다. 공화국의 이 지위와 힘은 시간의 흐름에 정비례하여 더욱 높아지고 강력해지고있다. 이런 공화국과 맞서보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행동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공화국의 초강력대결광기로 인

한 극도의 패배감과 열세감을 가리우고 저들내부에 확산되는 《안보불안》을 누갓혀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도 가능하지 못하고 경기동행하는것으로 언을것은 침담한 책임밖에 없다. 뒤일을 감당할 대결도 능력도 없는 주제가 가소롭게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해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팽배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팽배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팽배관으로 만들어놓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남조선 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을 떠들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강점 미 제정략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격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데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시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남조선 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을 떠들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강점 미 제정략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격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데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시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 섯지고 불속에 뛰어들려는 호전광들

부, 《국회》의 주요인물들과 미군과 언론사 및 군수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훈련을 참관하게 된다느니 하며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극단상황에 몰아가는 대결 망동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력사, 피와 눈물의 력사이다. 미제야수들은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노예로, 사냥감으로,

한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적도발》에 대한 《압도적대응》에 대해 떠들면서 각종 무인기계를 련일 군사분계선상공에 들이밀어 공화국지역에 대한 감시정찰행위에 광분하고있다가 대한 유사시 공화국지역에 대한 야간공중침투 및 타격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소동도 그칠새없이 벌렸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남조선강점 미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서해연접 지역과 평택미군기지를 돌아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정세악화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지만 그것은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오늘의 조선반도환경은 조선전쟁이 일어났던 지난 세기 5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화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강력, 절대적합을 지닌 세계적인 핵강국, 초대강국이다. 공화국의 이 지위와 힘은 시간의 흐름에 정비례하여 더욱 높아지고 강력해지고있다. 이런 공화국과 맞서보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가소로운 행동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공화국의 초강력대결광기로 인

한 극도의 패배감과 열세감을 가리우고 저들내부에 확산되는 《안보불안》을 누갓혀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엄연한 현실과 대세의 흐름도 가능하지 못하고 경기동행하는것으로 언을것은 침담한 책임밖에 없다. 뒤일을 감당할 대결도 능력도 없는 주제가 가소롭게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해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팽배관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팽배관으로 만들어놓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남조선 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을 떠들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강점 미 제정략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격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데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시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남조선 호전광들이 반공화국침략전쟁을 떠들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특근참모총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이 미국과의 대규모합동공중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끝내기 바쁘게 남조선강점 미 제정략군 우두머리들과 함께 백령도에 위치한 전방부대와 평택미군기지를 돌아다니며 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그 무슨 《대비격회》과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하고 부대장병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였다. 한편 남조선일본 《안보실장 회담》이니, 남조선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이니 하는것을 벌여놓은 데 이어 6월 2일에는 남조선일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5월 31일부터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대양상상시기전과 방지구상》을 위한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 《이스턴 테버》(《동방의 시도》)를

## 남조선은 친미광대판으로 만들어놓는 쓸개 빠진 망둥

최근 윤석열역적매당이 남조선미국 《동맹》의 70년을 더욱 미화분식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역적매당이 그 무슨 남조선미국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들을 련이어 벌리고있는 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 해괴한 광대판들에서 역적매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 방안을 론의한다. 남조선미국 《의원련맹》 결성준비를 다그친다. 《확장적역력》제공과 경제안보협력방안 등을 론의한다. 어쨌든 하며 역적을 늘어놓는다.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미노복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주제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남조선미국 《동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 준것이란 무엇인가.

불행과 고통, 제약밖에 없다. 언젠가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가 《남조선은 미합중국에 예속된 무주권지이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장악된 식민지이다.》라고 폭로한바 있다. 실제로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고있는것은 미국이다. 미국과 남조선과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노예의 관계이다. 외세에 유린당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삶을 론한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말그대로 외세에 자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는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력사, 피와 눈물의 력사이다. 미제야수들은 남조선인민들을 한갓 노예로, 사냥감으로,

노리개로, 《식민지정권인》으로, 지어 틀리더 여기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때없이 죽이고 녀성들을 백수로 마음대로 겁탈하는 등 처벌되는 만행들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1948년 제주도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 나물케는 소년을 썰이러고 쓰아죽인 군사소녀총격사건, 구두땀이 소년을 깔로 찌르고 상자에 넣어 직승기로 실어다 내던져 죽인 부평소년직승기폭격사건, 뿔나무를 쫓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아죽인 파주 나무군사살사건, 죽국의 인간중으로서상과 별래가 밋어낸 동두천어린이학살사건, 세인을 강압차로 두 녀중학생을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저지른 만행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1980년 5월 전두환군사장패 무리들을 내몰아 광주인민봉기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도시를 불속에 뛰어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국의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고 식민지적타락을 강화하는 것으로 살해했다. 또한 남조선을 반공화국인상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약약고로 전락시켰으며 북침전쟁책동을 그칠새없이 광란적으로 벌이며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관의 구조를 함께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고종국

정년 역적매당이 떠드는 남조선미국 《동맹》의 70년사야말로 미국에 의한 치욕과 굴종, 침략과 약탈, 살륙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매당은 이러한 범죄사를 《기념》이니 뽐내며 미화분식하면서 침략자, 나랑자들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상진을 찾아가 온갖 비굴한 추태를 부리며 남조선을 미국의 최후한 식민지로, 북침전쟁의 전초기지로 내밀기는 망동을 부린것으로도 모자라 지금은 남조선전체를 친미광대판으로 만들어놓고있으며 윤석열역적매당이야말로 친추에 용납 못할 만교역적주리들이다. 《미군없는 땅, 미국없는 세상》을 바라는 남조선인심 《윤석열퇴진》, 《윤석열심판》의 구조를 함께 들고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고종국

남조선 《국회》에는 따라다니는 오명도 많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망나니국회》, 《빈손국회》, 《에스렁국회》, 《날치국회》, 《랑관국회》, 《방탄국회》... 정치와 민생을 론한다는 마당에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사남게 놀아왔으면 가지가지의 오명들이 이처럼 닥치닥치 불어다니겠는가. 요즘 《특별검사제》도입을 놓고도 또 한차례의 《동물국회》가 펼쳐졌다. 윤석열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의 문물표절, 추가작을 비롯하여 역적매당이 련루턴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권력의 비호밑에 아무런 법적처벌도 받지 않고있는데 대한 불만이요 사람들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적극 수사할데 대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기회로 항상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던 여야사이에 또다시 란투국이 벌어

《국민의 힘》것들은 《특별검사제》도입에 대하여 야당들의 정치적리수이나 채우기 위한 련치없는 망동이며 립법거행행위, 정치적야합의 산물이라고 피대를 두주어대다 못해 회의장에서 집단적으로 회장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반면에 야당들은 《특별검사제》도입법안을 외면하는것은 량심 없는 행위이며 《국민의 힘》은 《방탄폭주장》으로서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맞서고있다. 《특별검사제》도입문제만이 아니라 《간호법제정안》토론시에도 《국민의 힘》것들은 집단적으로 퇴장하였다가 저들의 리수익이 있는 다른 《법안》토론때에는 입장하는 해피한 망동을 부리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남조선정치권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자유》와 《공정》을 운운하는 《국민의 힘》페커들이 《특별검사제》도입을 한사코 반대해나서는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우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

## 추악한 구걸행각이 초래한 필연적산물